대학창업문화가 간호창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박민경[1] · 신화진[2]

[1]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 [2]거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Impact of University Start-up Culture on Nursing Start-up Attitude :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ship

Min Kyoung, Park[1] · Hwa Jin, Shin[2]

[1]Department of Nursing, Ulsan College, Assistant Professor

[2]Department of Nursing, Geoj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별책』 제7권 제3호 2023년 9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7, No. 3, September. 2023

한국간호연구학회지 제7권 제3호 2023년 9월 ISSN(Print) 2586-2057 · ISSN(Online) 2671-5686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7, No. 3, 19-29, September 2023 https://doi.org/10.34089/jknr.2023.7.3.19

대학창업문화가 간호창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박민경[1] · 신화진[2]

[1]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 [2]거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Impact of University Start-up Culture on Nursing Start-up Attitude :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ship

Min Kyoung, Park[1] · Hwa Jin, Shin[2]

[1]Department of Nursing, Ulsan College, Assistant Professor
[2]Department of Nursing, Geoj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art-up culture and nursing start-up attitude by nursing students. **Methods :**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38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in December 2022 and analyzed using the IBM SPSS/Win 26.0 program. The mediating effect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SPSS PROCESS macro model 6. **Results :**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art-up culture and nursing start-up attitud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whereas entrepreneurship had no mediating effect. **Conclusion :** To improve nursing start-up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ays to increas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by positively recognizing university start-up culture.

Key words : Nursing, Attitude, Self efficacy, Culture, Entrepreneurship

교신저자 : Hwa-Jin Shin, / (53325) Department of Nursing, Geoje University, 91 Ma-geon 1gil, Geoje
Tel : +82-55-680-1583, Fax : +82-55-680-1656, E-mail : hjshin@koje.ac.kr
접수일 : 2023.07.04 / 수정일 : 2023.07.31 / 게재확정일 : 2023.09.15
* 이 논문은 2022년 울산과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에서 창업은 19세기 Florence Nightingale이 크림전쟁에서의 역할, Saint Thomas Hospital에 간호학교를 설립하는데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1]. 현대의 간호 관점에서 창업은 임상현장 외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의 가시성을 확장, 통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국내외 논의가 부족한 실정으로 실무와 연구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1, 2]. 우리나라는 최근 유병 장수시대로 변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의 주 활동무대는 치료목적의 임상현장에서 예방과 재활중심의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다[3].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진로도 기존의 병원취업에서 지역사회 다양한 창업으로의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업태도란 창업에 대한 인식수준 및 감정상태, 구체적인 탐색과 같은 행동적 요소를 의미하는 동시에 일관성 있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개인의 학습된 경향을 의미한다[4]. 개인의 창업태도가 동기가 되어 창업기회를 발견하고 창업의도 및 창업의지에 이어 창업행동으로 발전한다. 간호창업태도가 좋을수록 간호창업행동에 대해 긍정적이고 창업관련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간호대학생의 간호창업에 대한 태도 수준을 우선적이고 다각도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5, 6].

그간 간호대학생의 간호창업 영향요인 연구결과는 기업가정신, 경력지향성, 창업성향, 자기효능감, 창업교육요구도 등 개인특성에 집중되어 있었다[7, 8]. 그러나 창업은 개인적인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고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9]. 국내 간호대학생의 창업의지 관련 변수를 분석하여 창업문화 인식, 강사교육기술의 환경요인 관련 연구변수는 도출하였으나[10] 간호대학생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최근 대학들은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따라 창업 관련 학사제도 운영, 창업지원 전담조직 구성, 장비 및 공간 구축, 지역과의 창업협력 및 공유 등 창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1]. 따라서 현시점의 간호대학생의 간호창업태도에 대학창업문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포함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창업문화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창업에 대해 공유되는 가치, 믿음, 사고방식 등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12], 창업효능감은 '창업가로서의 역할과 과업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의미한다[13]. 기업가정신은 '위험을 무릎 쓰고 기회를 포착하여 사업화하는 도전과 모험의 정신'으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중요한 구성요인이다[14]. 간호창업과 관련된 주요 연구변수와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창업문화는 대학생 창업지원프로그램 및 창의성 역량교육, 사회적 지지를 내포하며 이는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9].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 및 창업태도나 창업의지의 변수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7, 8]. 대학생이 인식한 창업문화, 강사교육기술, 창업멘토링 등 대학창업문화는 창업의지나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요인이다[10].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학창업문화가 창업의지나 창업의도에 앞선 창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창업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간호창업태도의 수준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이 인식한 대학창업문화와 간호창업태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은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여,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창업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인식한 대학창업문화와 간호창업태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학창업문화,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 간호창업태도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창업문화,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 간호창업태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 대상자의 대학창업문화,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 간호창업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대학창업문화와 간호창업태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창업문화와 간호창업태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이중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남, 경남,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의 간호학과 재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며 Cohen의 공식에 따라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SPSS Process macro의 6번 model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7, 15].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3개(대학창업문화,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일 때 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119명이었다. Google docs의 설문지 문항마다 필수문항을 설정하여, 대상자는 설문에 응답 후 다음 문항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참여한 138명이 최종 연구대상자가 되었다.

3. 연구 도구

1) 대학창업문화

대학창업문화는 Yu와 Yang[16]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사회문화적 요인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대학의 창업문화 6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창업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Yu와 Yang의 연구[16]에서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2였다.

2)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은 Ki[17]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5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창업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3)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Ki[17]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3개의 하위영역, 총 15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가 정신이 높음을 의미한다. Ki[17]의 연구에서 하위영역별로 제시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5～.88, 본 연구에서는 .95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혁신성(5문항) .91, 진취성(5문항) .86, 위험감수성(5문항) .90이었다.

4) 간호창업태도

간호창업태도는 Lim 등[6]이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6개의 하위영역으로 자아실현의 기회(3문항), 네트워크 형성(2문항), 창업역량 강화(2문항), 창업성과(2문항), 창업기반 준비(2문항), 위험감수(1문항) 총 12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창업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Lim 등[6]의 연구에서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5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5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12월 05일부터 07일까지였다. 각 대학의 간호학과에 동의를 얻어 Google docs의 설문지 URL 링크를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재학생에게 전송하였는데, URL 링크의 제목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창업태도 설문지 참가자 모집"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 참여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고,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로 소정의 선물(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는 실수와 백분율로, 평균, 표준편차 및 범위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창업문화,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 간호창업태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확인하고,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대학창업문화,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 간호창업태도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값으로 분석하였다. 대학창업문화가 간호창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Hayes[18]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적용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표본 10,000번을 사용하여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U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 1044363-A-2022-004)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Google docs의 URL 링크를 통해 자가 보고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설문지 서두에 본 연구의 목적, 절차, 익명성 보장 및 비밀유지, 연구 참여의 자율성과 철회 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고 대상자가 동의 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최종 Google docs에 생성된 설문지 응답결과는 연구자가 다운로드하여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고 Google docs에서는 삭제하였다. 대상자에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소정의 선물 제공 후 바로 삭제하였고, 설문응답 결과는 연구종료 후 3년간 보관 후 보관기간이 끝나면 영구히 삭제할 계획이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학창업문화,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 간호창업태도의 수준

138명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120명(87.0%), 남성 18명(13.0%)이었으며, 2학년이 49명(35.5%)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수준은 '중'이 114명(82.6%)이었으며,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은 37명(26.8%)으로 나타났다. 캡스톤디자인 경험이 있는 학생은 19명(13.8%)에 해당하였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는 학생이 101명(73.2%)이었다. 대상자가 인식한 대학창업문화는 5점 만점에 평균 3.04±0.90, 창업효능감은 3.81±0.64, 기업가정신은 3.49±0.71, 간호창업태도는 4.11±0.59였다 [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창업문화,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 간호창업태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연구변수 간의 차이는 없었다. 학년에 있어 간호창업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3.48$, $p=.018$), 4학년이 2학년에 비해 간호창업태도가 긍정적이었다. 경제수준은 창업효능감($F=1.89$, $p=.009$), 기업가정신($F=3.25$, $p=.042$), 간호창업태도($F=1.31$, $p=.023$)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경제수준 '상'인 학생은 '하'로 인식하는 학생에 비해 창업효능감이 높았고, 경제수준 '중'인 학생이

Table 1. College Start-up Cultur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ship, Nursing Start-up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13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ollege start-up cultur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ship			Nursing start-up attitude		
			M±SD (Range)	F or t(*p*) Scheffé		M±SD (Range)	F or t(*p*) Scheffé		M±SD (Range)	F or t(*p*) Scheffé		M±SD (Range)	F or t(*p*) Scheffé	
Gender	F	120 (87.0)	3.02±0.91	-0.73 (.462)		3.81±0.65	0.19 (.843)		3.48±0.71	-0.03 (.970)		4.10±0.61	0.10 (.917)	
	M	18 (13.0)	3.19±0.76			3.77±0.57			3.49±0.70			4.09±0.47		
Grade	1st[a]	24 (17.4)	3.05±1.02	0.10 (.956)		3.80±0.54	2.19 (.091)		3.62±0.64	1.60 (.192)		4.17±0.51	3.48 (.018) b<d	
	2nd[b]	49 (35.5)	2.99±0.79			3.65±0.66			3.32±0.70			3.93±0.66		
	3rd[c]	46 (33.3)	3.10±0.92			3.84±0.67			3.52±0.77			4.12±0.56		
	4th[d]	19 (13.8)	3.04±0.97			4.08±0.53			3.66±0.60			4.42±0.40		
Economic level	High[a]	9 (6.5)	3.42±0.97	0.91 (.405)	3.04± 0.90 (1.00 ~ 5.00)	4.26±0.60	1.89 (.009) a>c	3.81± 0.64 (2.00 ~ 5.00)	3.83±1.02	3.25 (.042)	3.49± 0.71 (2.00 ~ 5.00)	4.14±0.72	1.31 (.023) b>c	4.11± 0.59 (2.58 ~ 5.00)
	Middle[b]	114 (82.6)	3.03±0.91			3.81±0.60			3.51±0.69			4.15±0.55		
	Low[c]	15 (10.9)	2.94±0.89			3.45±0.76			3.12±0.50			3.71±0.65		
Start-up education	Educated	37 (26.8)	3.33±0.98	2.32 (.021)		4.01±0.61	2.37 (.019)		3.69±0.77	2.09 (.038)		4.22±0.54	1.40 (.162)	
	Uneducated	101 (73.2)	2.94±0.84			3.72±0.63			3.41±0.67			4.06±0.60		
Capstone design	Experienced	19 (13.8)	3.46±1.11	2.20 (.029)		4.05±0.73	1.82 (.070)		3.73±0.93	1.26 (.221)		4.39±0.57	2.35 (.020)	
	Unexperienced	119 (86.2)	2.98±0.84			3.76±0.61			3.45±0.66			4.05±0.58		
Major satisfaction level	Satisfaction[a]	101 (73.2)	3.05±.088	0.15 (.861)		3.90±0.59	6.88 (.001) a>b		3.49±0.69	0.61 (.542)		4.18±0.56	3.81 (.024) a>b	
	Medium[b]	31 (22.5)	2.98±0.87			3.44±0.61			3.41±0.69			3.88±0.56		
	Unsatisfaction[c]	6 (4.3)	3.19±1.35			3.93±0.94			3.75±1.06			3.87±0.91		

M=Mean; SD=Standard deviation.

'하'로 인식하는 학생보다 간호창업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은 대학창업문화(t=2.32, p=.021), 창업효능감(t=2.37, p=.019), 기업가정신(t=2.09, p=.038)이 유의하게 높았고, 캡스톤디자인을 경험한 학생은 대학창업문화(t=2.20, p=.029)와 간호창업태도(t=2.35, p=.020)가 높았다. 전공만족도에 따라 창업효능감(F=6.88, p=.001)과 간호창업태도(F=3.81, p=.024)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만족한다'의 경우 '보통이다'보다 창업효능감이 높고, 간호창업태도가 긍정적이었다[Table 1].

3. 대상자의 대학창업문화,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 간호창업태도의 상관관계

간호창업태도는 대학창업문화(r=.21, p=.013), 창업효능감(r=.48, p<.001), 기업가정신(r=.43,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창업문화는 창업효능감(r=.37, p<.001)과 기업가정신(r=.4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창업효능감은 기업가정신(r=.66, p<.001)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2].

Table 2. Correlation of College Start-up Cultur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ship, Nursing Start-up Attitude (*N*= 138)

Variables	College start-up cultur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ship	Nursing start-up attitude
		r(*p*)		
College start-up culture	1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37(<.001)	1		
Entrepreneurship	.48(<.001)	.66(<.001)	1	
Nursing start-up attitude	.21(<.013)	.48(<.001)	.43(<.001)	1

4. 대상자의 간호창업태도 이중매개효과

대상자의 간호창업태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일 변량 정규성 검증에서 왜도는 절대값 2, 첨도는 7을 넘지 않아 표본의 정규성 만족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의 Durbin-Watson 검사 결과 2.09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31~2.01로 10.0을 넘는 것이 없고 공차한계도 .50~.77로 모두 0.1 이상으로 독립변수 사이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대학창업문화와 간호창업태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Table 3], 첫째, 대학창업문화는 매개변수인 창업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ß=.26, p<.001), 모델의 설명력은 16%였다. 둘째, 대학창업문화(ß=.21, p<.001)와 창업효능감(ß=.63, p<.001)은 각각 기업가정신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고 50%의 설명력이 있었다. 셋째, 각 독립변수의 간호창업태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학창업문화는 간호창업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ß=-.01, p=.88), 창업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가 있었으며(ß=.30, p<.001), 기업가정신은 매개효과(ß=.17, p=.05)가 미미하였다. 간호창업태도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은 26%였다.

다음으로 간호창업태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Table 4], 매개효과의 총 효과는 .22, 95% CI[0.11, 0.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학창업문화와 간호창업태도에 있어서 창업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95% CI[0.03, 0.23]). 둘째, 대학창업문화와 간호창업태도에 있어서 기업가정신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art-up Culture and Nursing Start-up Attitude (*N*=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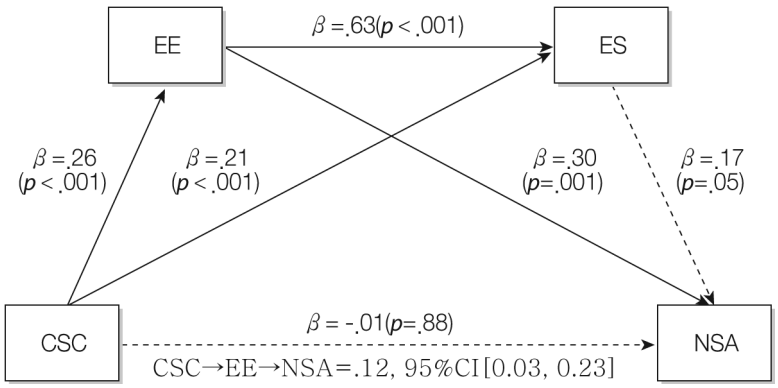
Variables	β	SE	t	*p*	95% CI	
					LLCI	ULCI
CSC → EE	.26	.05	4.66	<.001	0.15	0.37
		R=.40, R^2=.16, F=8.51, p<.001				
CSC → ES	.21	.05	4.07	<.001	0.10	0.31
EE → ES	.63	.07	8.55	<.001	0.48	0.77
		R=.71, R^2=.50, F=33.85, p<.001				
CSC → NSA	-.01	.05	-0.14	.88	-0.12	0.10
EE → NSA	.30	.09	3.26	<.001	0.12	0.49
ES → NSA	.17	.08	1.97	.05	-0.00	0.35
		R=.51, R^2=.26, F=9.23, p<.001				

CSC=College start-up culture; EE=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S=Entrepreneurship; NSA=Nursing start-up attitude; LLCI=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Table 4. Bootstrapping Result on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Start-up Attitude (*N*= 138)

Variables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CSC → EE → NSA	.12	.05	0.03	0.23	Accept
CSC → ES → NSA	.02	.03	-0.00	0.13	–
CSC → EE → ES → NSA	.04	.02	-0.00	0.09	–
Total indirect effect	.22	.06	0.11	0.35	

CSC=College start-up culture; EE=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S=Entrepreneurship; NSA=Nursing start-up attitude; Boot.=Bootstrapping; LLCI=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CSC=College start-up culture; EE=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s=Entrepreneurship; NSA=Nursing start-up attitude; β=St 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95% CI=95% confidence in terval.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art-up culture and nursing start-up attitude by the PROCESS Macro

아 매개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95% CI[-0.00, 0.13]). 셋째, 대학창업문화와 간호창업태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에도 95% CI[-0.00, 0.09]로 이중매개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대상자가 인식한 대학창업문화와 간호창업태도와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확인되었으나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와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의 이중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Figure 1].

Ⅳ. 논 의

본 연구에서 대학창업문화와 간호창업태도의 관계에 있어 창업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으나, 기업가정신은 매개효과가 없었고,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이중매개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창업문화의 일환인 창업교육이[12] 창업태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지만 창업교육과 창업효능감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에 있고, 창업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이 창업태도가 좋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19, 20]. 또한 기업가정신은 간호창업태도의 영향요인은 아니라는 타 연구결과와 동일하다[7].

대학이 간호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창업지원은 간호창업태도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학창업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이어 창업정보를 활용한 창업계획과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창업효능감이 높아짐으로써 간호창업태도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식, 기술, 경험을 창업태도로 내재

화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변형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이것이 창업효능감이다[19]. 스스로 개인의 능력에 대해 확신이 될 때 창업태도는 더 단호해지므로[19] 간호창업태도가 좋아지려면 간호대학생의 창업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직접 영향요인은 대학창업문화로 나타나 먼저 간호대학생이 대학창업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창업문화는 체계화된 대학창업교육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12, 21]. 본 연구에서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 군이 대학창업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창업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는 간호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이 창업효능감과 창업태도가 높다는 타 연구결과[22]와 맥락을 같이 한다. 대학창업문화는 개인특성인 기업가정신, 사회적 요인인 행위자간 상호작용, 결합요인인 창업환경 및 제도를 구성요인으로 하는데[12], 이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간호창업교육을 짜임새 있게 조직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 간호창업교육은 간호대학생이 지금 당장 창업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대학에서부터 갖추도록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23] 신규간호사의 이직 문제해결, 유휴 간호사 활용 등 미래간호를 위한 토대마련으로 확장하여 이루어져야 한다[7, 24]. 대학창업문화의 결합요인 측면으로 성공한 간호창업 전문가 인력 풀을 확보하고 간호기술력에 대한 다학제 간 융합교육과정 환경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12]. 간호대학생의 개인특성인 성격특성과 창업요구도를 우선 고려하여[25] 경영이론, 마케팅 관련 강의를 비롯한 창업성공사례 특강,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팀프로젝트 활동 등 핵심내용을 포함하는 전략적, 점진적 교육과정으로 개선해야 한다[12, 26]. 특히, 이론중심보다는 간호실무 경험을 중심으로[12], 간호학문의 이점을 살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현실화하는 새로운 시제품 개발, 특허출헌, 사업자등록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23]. 더불어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요인 측면인 교수와 선후배, 전문가, 동료 간에 협력적 상호작용은 대학창업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창업효능감은 대학생의 간호창업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직접적인 영향요인이었고 대학창업문화와 간호창업태도에 있어 완전 매개하였다.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나 창업의도를 높이는 선행요인임을 보여준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27, 28]. 창업효능감은 창업가로서 과업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신념으로[13], 창업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창업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게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일이 잘못되더라도 빨리 바로잡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됨으로써 간호창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강화된다[17]. 창업효능감 향상을 위해서는 창업시뮬레이션 등 모의창업 프로그램과 현장실습, 성공한 간호창업가와의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신감을 높이고 창업활동 수행능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29].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5점 만점에 3.49점으로 선행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고[7, 8], 간호창업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아니며 매개효과도 드러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은 간호창업태도를 향상시키는 영향요인이 아니라는 결과[7]는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지만, 간호창업의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8]. 기업가정신의 개념은 기회를 감각적으로 아는 것, 자율성, 독립성, 유연함, 단호함, 능동성, 위험감수, 도전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관련이 깊은데[30], 이러한 특성 때문에 창업 결심이 있는 창업의지 보다 소극적인 개념인 간호창업태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창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낮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성실성의 장점이 있어[8] 우선, 간호대학생의 성격특성을 반영한 기업가정신을 탐색하여 창업활동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25]. 또한 간호창업태도와 간호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대학창업문화가 긍정적이면 창업효능감을 완전 매개하여 간호창업태도가 향상된다는 점을 검증하였으며, 그동안 간호학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대학창업문화가 간호창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로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창업태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긍정적인 대학창업문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대학창업문화와 간호창업태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검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창업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창업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대학창업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하다. 첫째, 본 연구는 3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 확대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창업태도와 기업가정신의 관계에 있어 성격특성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을 위한 대학창업문화 확산의 방안 모색의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Copelli FHDS, Erdmann AL, Santos JLGD. Entrepreneurship in nursing: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Revista Brasileira de Enfermagem. 2019;72:289-98. https://doi.org/10.1590/0034-7167-2017-0523
2. Tekin PS, BEKAR F. Nurse entrepreneurship in the emerging healthcare industry: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s. 2022:1-12. https://doi.org/10.22541/au.167061325.58400929/v1
3. Lim JY, Kim KJ, Kim JH, Kim SK. In: easy start-up management for nurses. Seoul: HN media; 2019. p. 193-237.
4. Yoo JH. An analysis of cultural contents creator's attitude on business foundation and promotion plan for one person companies in contents creation busines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1. p. 1-196.
5.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human decision processes. 1991;50(2):179-211. 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0-T
6. Lim JY, Kim GM, Kim EJ. Development of the nursing start-up attitude scale for student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20;26(4):388-99. https://doi.org/10.11111/jkana.2020.26.4.388
7. Kim SK, Oh SE.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nursing start-up attitudes. Journal of Wellness. 2022;17(1):121-127. https://doi.org/10.21097/ksw.2022.2.17.1.121
8. Lim JY, Kim GM, Ko GJ.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personality traits, and need for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7;19(6):3361-77. https://doi.org/10.37727/jkdas.2017.19.6.3361
9. Yoon BS.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Journal of Korean Business Review. 2004;17(2):89-110.
10. Lim JY, Kim EJ, Kim SK.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Derivation of research variables to promot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20;26(4):340-53.

http://doi.org/10.11111/jkana.2020.26.4.340

11.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2022 University start-up operations guide [Internet]. Seoul: The Ministry of Education. 2022 [cited 2022 December 15]. Avaliable from: https://www.gnstartup.kr/api/attached-file/7f303e22-4d80-4e52-8e78-47bb6ecdd600
12. Yoon JU, Park HJ, Song MH, Kim DH, Kim YS, Lee HG, et al. A study on the promotion of university start-up culture. Startup culture promotion report.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16. February. Report No.: TRKO201600015731.
13. Zhao H, Seibert SE, Hills GEJ.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2005; 90(6):1265-1272. https://doi.org/10.1037/0021-9010.90.6.1265
14. Miller D.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 1983;29(7):770-91. https://doi.org/10.1287/mnsc.29.7.770
15. Han SJ. Effect of nursing work environment, Job craft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nurses' job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22;28(1):9-19. https://doi.org/10.11111/jkana.2022.28.1.9
16. Yu YH, Yang DW(2008). An empiric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career orientation, social & cultural perception, and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1(5), 2347-2368.
17. Ki HS. A study on the factors of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dissertation]. Seoul: Soongsil University; 2022. p. 1-109.
18. Hayes AF. The guilford pres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New York, USA: Guilford publications; 2022.
19. Liu X, Lin C, Zhao G, Zhao D. Research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Frontiers in psychology. 2019; 10:869. https://doi.org/10.3389/fpsyg.2019.00869
20. Lee JR, Jang GS. Impact of startup support program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pportunity recognition·Startup inten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2018;13(1):43-60.
21. Choi JI, Park CG. The key success factors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implication from USA University cas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2013;8(3):85-96.
22. Lim JY, Kim J, Kim S. The effects of the Start-Up NurseS program on nursing students using management strategy simulation. Journal of Nurse Education Today. 2021;105:105020. https://doi.org/10.1016/j.nedt.2021.105020
23. Kim BN, Yim CJ, Jo EY, Sung BC, Jang GS, Wung SH, et al. Nursing startup. Paju: Soomoonsa; 2019. p. 544.
24. Lv Y, Chen Y, Sha Y, Wang J, An L, Chen T, et al. How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universities influences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ing effect based on entrepreneurial competence. Journal of Frontiers in Psychology. 2021;12:655868. https://doi.org/https://doi.org/10.3389/fpsyg.2021.655868
25. Romero-Galisteo R-P, Gonzălez-Sănchez M, Gălvez-Ruiz P, Palomo-Carriŏn R, Casuso-Holgado MJ, Pinero-Pinto E. Entrepreneurial intention, expectations of success and self-efficacy in undergraduate students of health sciences. Journal of BMC Medical Education. 2022;22:1-7. https://doi.org/10.1186/s12909-022-03731-x
26. Arranz N, Ubierna F, Arroyabe MF, Perez C, Fdez. de Arroyabe J. The effect of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university students' en-

trepreneurial intention and competences. Journal of Studies in Higher Education. 2017;42(11):1979-2008. https://doi.org/10.1080/03075079.2015.1130030

27. Piperopoulos P, Dimov D. Burst bubbles or build steam?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015;53(4):970-85. https://doi.org/10.1111/jsbm.12116
28. Tsai KH CH, Peng CY. Extending the link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intentio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2016;12(2):445-463. https://doi.org/10.1007/s11365-014-0351-2
29. Noh WJ, Kang JW, Lee YJ. Research trends review of undergraduates'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to develop the entrepreneurship program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19;9(2):148-154.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2.148
30. Sales O, Cruvinel D, Silva D, Santos L. Enterprise teaching i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 at university paulista (UNIP) Goiânia-Goiás. Journal of the Health Sciences Institute. 2008;26(2):167-72.